

열왕기 시대와 남은자들 -열왕기하-

열왕기하 13:1-6, 야고보서 5:17-18

정윤돈 목사님

요약

서론 : 열왕기상하의 기록 목적 -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저주받게 되지 말라'

1. 열왕기 시대의 악한 왕들과 그들의 악행들

- (1) 여로보암의 길을 따름 (복음보다 육신의 복을 추구하여 금송아지를 섬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움,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기고 절기를 바꿈)
- (2) 많은 다른 악행과 가증한 일을 행함
- (3) 선한 왕들조차도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남겨둠

2. 열왕기 시대의 남은 자들

- (1) 대표적인 남은 자 선지자 : 엘리야, 엘리사
- (2) 대표적인 남은 자 왕들 : 히스기야, 요시아
- (3) 대표적인 남은 자 평신도 : 제자들, 수벳 여인, 오바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들

결론 : 복음 가진 지도자, 남은 자, 영적 서밋이 되어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소중한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전체의 내용을 배경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긴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줄 믿는다. 지난 번 설교하면서 1500년의 기독교 교회사를 30분 만에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려서 죄송했는데, (웃음)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러나 이 안에 소중한 교훈이 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지 않나? 즐겁게 네 사건, 네 인물을 읽어간다. 출애굽기도 즐겁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 시험에 빠진다. (웃음) 그 고난을 다 이기고 나서 성경을 통독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에서다. 여기에서 고비가 온다. 주일학교 교사를 내가 오래 했는데, 옛날에는 계단식 공과라는 것이 있었다. 성경 전체를 순서대로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열왕기에 들어오면 참 힘들었다. 비슷한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나. 그때만 해도 의미를 몰랐다. 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하느냐 싶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다시 읽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각인은 반복할 때 되어진다. 왜 부모님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가? 중요하기 때문이지 않나.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어떤 책보다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열왕기상하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란다.

서론 : 열왕기상 하 성경의 의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가 각각 한 권으로 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인데,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두 권 짜리인 것이다. 그것을 70인 역,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쉽게 바꾸었다. 제목이 왕국기 1, 2, 3, 4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영어 성경도 (The Book of) Samuel, (The Book of) Kings로 되어 있고, 한글 성경도 이를 따라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로 나누고 있다.

(1) 열왕기상하를 읽어야 하는 이유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왕국에 대한, 역사에 대한 책들이 있다. 그 중에 에드워드 기번이 쓴 '로마제국 쇠퇴사'라는 책이 있다. 유럽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인문 고전이요, 명작 중의 명작인데, 아주 어리석은 사람도 이 책을 몇 번 읽으면 천재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그렇게 우수한 작품이다. 동양에서는 사마천이 쓴 '사기'가 있다. 중국 삼황오제(三皇五帝)의 신화시대부터 한나라(西漢)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이 주로 읽는 삼국지 같은 책도 있고, 일본의 역사를 두고 쓴 '대명'이라는 소설도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를 떠올려 보면, 어머니 아버지 삼촌 모든 가족이 누워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 책이 '대명', 즉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였다. 이것을 모르면 일본 역사를 알기가 힘들다. 우리 한국에도 시대적으로 자랑할 만한 역사책이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이다. 매일매일의 일들을 다 기록했는데, 인류 문화 유산으로 손색이 없는 사실적인 기록이고 명작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책들을 읽는다 해도, 우리 민족과 국가에 당하는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는 없다. 많은 지혜를 얻을 수는 있을지언정, 재앙과 저주, 멸종의 위기는 막을 수 없다. 그런 책을 천 번을 읽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 그러나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는 다르다. 여러분이 이 책을 열 번을 읽는다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개혁될 것이다.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고, 또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뱃속 깊이 각인시킬 수 있다. 이러한 영적인 역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다.

(2) 열왕기상하 내용의 개요

사무엘상은 한나, 사무엘, 사울의 이야기이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다. 그리고 열왕기상의 앞부분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길지는 않다. 어려서 왕이 되고, 7년 간 성전을 건축하고, 왕국을 13년 동안 건축하고, 언약궤를 회복하고, 제사를 지내고, 말년이 되어 천 명 가까운 후궁을 얻었다가 우상이 들어오고, 나라가 우상국가 되는 실패의 결과가 온 것이다. 그렇게 내용은 길지 않은데, 솔로몬이 왜 이렇게 유명할까? 아가, 잠언, 전도서 같은 소중한 솔로몬의 저작이 있기 때문이다. 열왕기상은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라면, 12장부터 22장까지, 그리고 열왕기하의 25장 전체는

남왕국 유다 25명의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3) 열왕기상하 저자와 저자의 기록 의도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사람을 우리가 보통 예레미야라고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물론 하나님이 기록하셨지만, 이 성경을 직접 기록했던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이 책이 기록된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백 수십 년 전에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체험하고 있을 때였다. 이때 이 책을 기록한 저자는, 후대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를 원했을까? 그 내용이 무엇인가? '너희들은 이 왕들처럼 행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지 말고,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재앙이 왔고 이런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빼앗기고, 많은 백성은 생명을 잃었으며, 수십 년 동안 포로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전달한 것이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갔다가 잡혔다. 어떻게 되었나? 왕이 보는 앞에서 자식을 죽이고, 두 눈을 뽑아서 끌고 간 것이다.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질 것이다. 나라는 망하고, 왕이 수치를 당하고, 자식은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서, 36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이런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절대 이러한 역사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이 저주를 받지 말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언제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너희는 언약의 복을 받을 수 있으니, 어떤 위치에서 있더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라. 주님은 사죄의 축복을 주시고 지금부터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저자의 간절한 마음이다. 어떤 역사책 속에서도 볼 수 없는 비밀이다. 정말로 194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남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지 않나. 어떤 역사학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성령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말했다. 한국에 어떤 농학박사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매년 농업 기술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이스라엘로 보낸다고 한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농업 기술이 매년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을 때, 그 땅은 사막과 광야였다. 그런데 이 땅이 지금 농사가 제일 잘 되는 땅으로 변했다. 그야말로 젓과 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해 있다. IT 기술을 배우려고 해도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가야 한다. 경치를 제대로 하려고 해도 거기로 가야 한다. 내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 봤는데, 다이아몬드 세공을 많이 하더라. 80-90%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유대인 사업자들이 손에 넣어서 세공을 다 이스라엘로 가지고 온다고 한다. 견학을 가 봤더니 철문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웠다. 군사시설처럼 문이 되어 있다. 열리면 대형버스가 들어가고, 들어가면 다시 잠긴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구경을 하고 그랬다. 신학대학원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여학생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해서 보니까, 돈이 없는 신학생들이지만 몇 명이 모여서 돈을 합해서 다이아몬드 하나를 사더라. (웃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사실적인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본론 : 악한 왕들과 선한 왕들

어떻게 열왕기상하의 이 긴 말씀을 다 전할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 어렵지 않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망했다. 북에는 19명, 남에는 25명의 왕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왕들은 둘로 나누어진다. 선한 왕과 악한 왕이다. 북에는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 남에는 8명의 선한 왕과 17명의 악한 왕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은 자 되는 것이 어려운 것 같다. 우리 성도들이 악한 세상, 문제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지키 나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것 같다.

1. 악한 왕들과 그들의 행위

(1) 열왕기상하 시대의 대표적인 악한 왕들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악한 왕 몇 명만 소개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초대 임금이었다. 여로보암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악한 왕가가 있었는데, 아합 왕의 가문이다. 그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 왕이다. 역사적으로는 훨씬 유명한 왕인데, 성경에는 그렇게 길게 다루지 않는다. 왜냐? 열왕기상하의 특징은, 일반적인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서 점이다. 영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재구성한 것이므로, 일반 역사에서는 큰 공헌도 하고 정복활동도 했던 유명한 인물일지라도 성경에서는 간단히 나오며, 반대로 아합 왕처럼 세계사적으로는 유명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기록되는 경우도 있다. 오므리가 유명한 점이 뭐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땅을 돈을 주고 사서 도시를 세운 인물이 바로 오므리다. 오므리야스를 생각하면 된다. 아합 왕이 그냥 악해진 게 아니다. 오므리라는 악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합이 있었고, 오므리가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악한 며느리 이세벨을 짝지워준 것이다. 이 이세벨이 모략이 얼마나 출중했던가 하면, 남왕국 유다 왕에게 딸을 주어서 결혼을 시켰다. 그 딸이 아달랴다. 이 인물이 중요한데,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핏줄이 계속 이어져왔다. 북왕국은 왕가가 계속 바뀌지만 남왕국의 혈통은 변하지 않았는데, 아달랴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 이면계약 때문에, 끝까지 그 언약을 이어가신다. 무엇 때문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핏줄, 전통, 혈통을 이어가게 하셨던 것이다. 남왕국 유다에는 17명의 악한 왕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8명의 선한 왕도 있었다.

(2) 열왕기상하에 나타난 열왕들의 악한 행위들

- ① 왕들의 악한 행위가 있는데, 어떤 것이었는가? 왕하13:2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

를 따라가고" 열왕기상 하에는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여로보암의 악행과 같이' 같은 표현들이 나온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

1) 정치적인 이유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것이다. 나라는 나누어졌어도 예배와 제사는 예루살렘에서 드렸었는데, 북왕국에는 그런 장소가 없었다. 그러면 북왕국에도 성전이 있으면 될 것 아닌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벨벳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한 것이다. 왕상12:28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여러분, 보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신이 여호와와 하나님 아닌가?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고 한 것이다. 금송아지는 다산의 상징이다. 소를 통해 농사를 지으니까 경제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훈련시켜 주셨는데, 그것보다 자기를 배부르게 하고 육신적인 복을 주는 금송아지가 더 소중한 신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배한다 하면서, 사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각성하고 묵상해 보아야 한다.

2)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는다. 왕하12:31에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것은 신성 모독이고 율권행위다. 제사장을 안 세우는 게 아닌데, 창3장처럼,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의 교회라 하면서, 예수님은 빼놓고,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WCC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기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신비주의로 간다. 정확한 복음과 그리스도는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제양과 저주와 사단을 못 막는 것이다.

3) 또 잘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절기와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 버렸다. 유월절, 오순절, 수확절, 하나님이 세우신 날짜가 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자기의 시간표대로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며 섭리하고 계신데, 거기에 역행하는 행위를 여로보암이 한 것이다. 철저한 인본주의다. 그래서 열왕기상 하에서는 지속적으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② 또 왕들의 악한 행위가 무엇이었나? 왕하14:4에 보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했다. 요아스 같은 임금에 자기 어머니가 세운 우상을 다 없애고, 어머니가 우상을 섬겼다 해서 태후의 자리까지 폐했지만, 산당은 그대로 두었던 것이다. 약간 섭섭해서 제사는 계속 지내게 한 것이다. 나도 어릴 때 보았는데, 어머니의 친구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도 과거에 섬기던 불상은 남겨 놓았다. 넘섭해서, 버리기 아까워서, 여러번, 쓴 뿌리를 제거하고 참된 복음의 뿌리만을 남겨두시기 바란다. 적당히 남겨두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새로운 살 길이다. 못내세 같은 많은 다른 왕들도, 가중한 일을 행하며, 악을 행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고 했다. 이것이 모두 악한 왕들이 행한 악한 행위들이었다.

2. 열왕기 시대의 남은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고 기쁜 것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정치, 종교, 영적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영적 서밋들이 이 시대 현장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 쓰임받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 바란다. 여기에 많은 램넌트가 있는데, 절대 오묘되지 마라.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끌고 가라. 변질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켜라.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 가 봤자 행복하지 않다.

(1) 대표적인 인물이 선지자들이었다.

① 남은 자 엘리야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무엇인가?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데도, 엘리야는 혼자서 850명의 우상 섬기는 선지자와 맞섰다. 왕과 왕비의 후원을 받는 우상 종교와 싸웠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으로 종교다원주의로 빠져 가지만, 혼자 우뚝 서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란다. 갈등을 빚으라는 말이 아니다. 멋있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엘리야가 말했다. "나는 만민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이 특이하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영적인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만은 열심이 특이해 되시기 바란다. 그러면 영적인 것이 잘 되니까 법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충성을 다했으며, 사명을 다했더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들려 올라갔다. 신약 본문을 보면, 우리와 성경이 똑같았는데,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왔다. 우리 목회자, 장로님, 성도 중에 이런 기도의 사람이 나오기를 바란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된다. 이 영적 서밋, 기도의 서밋 한 명의 기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기도의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교단과 교회, 한국교회와 민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 한 명의 남은 자, 전체를 살릴 소수가 필요한 것이다.

② 다음의 남은 자는 엘리사다. 스승 엘리야보다 두 배의 영적 능력을 소망했다가 그대로 받게 되었다. 최목사님보다도, 나보다도, 교역자들보다도, 우리 램넌트들이 더 나아가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세계를 살릴 수 있다.

(2) 모든 왕들이 권력에 눈이 어두웠지만, 믿음을 지킨 남은 자 왕, 훌륭한 왕들이 있었다.

① 대표적인 것이 히스기야였다. 기도하다가 죽을 병을 이기고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 소식도 듣게 된다. 뒤에 보면 선지자가 죽어 나오는데, 열왕기상 하와 역대상하

를 알아야, 이 선지자가 이때 활동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다. 잇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지만 하룻밤에 다 죽고,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 주심을 체험했던 왕이 히스기야다. 전쟁이 일어나서 성 안에 수로와 수도를 판 것도 히스기야였는데, 이 수로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성경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게 해 준 또 하나의 증거다.

② 남은 자 요시아 왕이 있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회복시켰다.

(3) 그뿐 아니라 일반인 남은 자도 있었다.

① 제자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한 사람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어려움을 호소한다. 엘리사가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동네에 가서 그릇을 모아 왔더니 기름이 가득차게 한 것이다. 이 기름을 팔아서 과부가 빚을 갚았다. 빚 있는 분은 최목사님께 가서 기도 받으라. (웃음) 영적 서밋이다. 목회자는 이 정도 되어야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부도도 피하고 사업도 잘 되고 빚도 갚게 될 만큼 축복받게 될 만큼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교역자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란다.

② 수넬 여인은 엘리사를 세심하게 배려했다. 왕하4:8에 보면, 수넬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는데, 엘리사는 그를 평가하여, 세심한 배려를 했다고 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 선교사님들께 귀한 여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바란다.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다. 이런 체질로 변화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③ 다음 남은 자는, 어려운 시대에 소중한 역할을 감당한 오바다다. 위기 속에서 목숨을 걸고 선지자들을 보호한 선지자가 오바다였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자기의 명예와 생명, 재산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했다. 왕상18:4에 보면, "오바다가 선지자 백 명을 가지고 오십 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한 명의 중직자, 정치인, 산업인이 백 명의 목회자를 도와주고, 선교사의 식구인, 보호자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 중직자, 램넌트들이 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한다.

③ 또 칠천 명의 제자가 있었다. "나밖에 없습니까(왕상19:10)." 이것이 엘리야의 실수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을 높이실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엘리야가 굉장한 응답과 능력을 받았지만 착각에 빠졌다. "나밖에 없습니까."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괜찮지만, "나밖에 없습니까" 하는 것은 착각이다. 왕상19:18에, "너 외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 명의 제자를 남겨 놓았다." 오늘 우리교회와 복음 가진 모든 교회가 이 칠천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는다.

결론 : 지도자, 남은 자, 영적 서밋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한다. 나는 열왕기상 하를 묵상하면서 몇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1) 열왕기상 하를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복음적인 왕이 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다. 복음 가진 리더,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이 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정치인이 되면 모든 것을 표로 생각하고, 경제인이 되면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한다. 문화인이 되면 교만에 빠진다. 여러분은 완전한 복음을 가진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으로 영적 서밋이 되시기 바란다. 사단은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창3장, 6장, 11장과 행13장, 16장, 19장의 유희를 벗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중직자들이 오바다처럼 그 옆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왕기상 하를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가정, 가문, 직장, 학교에서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란다.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고, 모이기를 싫어하며, 예배도 훈련도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한다. 복의 근원이 되라. 대표적인 응답,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누리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체험하는 사실적인 증거를 보여라. 하나님은 간절히 부탁하시고 계신다.

(3) 우리는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황당한 일을 하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았다. 동물을 깨끗하게 하고, 나병을 고쳐 주신 것까지도 이해가 된다.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 도끼가 떠오르게 하셨다. 금도끼 은도끼 같은 이야기 아닌가. 왜 도끼를 떠오르게 하셨나. 묵상해 보았다. 우리도 도끼 집어던지고 떠오르게 하라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다. "너도 엘리야, 엘리사를 능가하는 영적 서밋이 되라. 너는 엘리야, 엘리사를 능가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것보다, 도끼를 만들어내는 제철소를 짓는 게 더 큰 응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다. 정말 여러분이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25시의 기적적인 응답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후대에 보여주고 이 시대에 보여주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기를 바란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능가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되며, 성경 속의 모든 증거를 실제로 보여주는 절대 제자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